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목자부흥의 밤(6/30)
 - GMI선훈생 16기 미주훈련(7/6~10/4)
 - 복음 통일 컨퍼런스(7/14~17)
 -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 및 목자 부흥의 밤(7/28)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6. 28

6월 넷째 주: 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가? (창세기 48:8-11)

■ Welcome

아버지나 어른에게서 받은 말, 기도, 혹은 축복 중에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창세기 48:8~11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9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 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 서론

미국에서는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날(Father's Day)로 지킨다.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여기며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형통과 장수의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신 후, 곧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관심 한 번, 축복의 기도 한 번이 자녀의 평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녀 신앙 교육의 최고 책임자로 가정의 영적 책임을 아버지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축복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며 경건의 유산이다. 성경은 왜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는가를 배우고자 한다.

■ 관찰 질문: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1.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12:2)”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그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통로가 바로 부모의 축복이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축복의 가치를 알았고,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열두 아들을 불러 축복한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적 선언이었다. 요셉은 풍성한 복을 받았고, 유다는 왕권의 복을 받았다. 훗날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것도 이 축복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기에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중요한 책임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손주에게로 은혜와 언약을 이어 가신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예) 존 패튼(John G. Paton) 선교사 아버지의 축복

선교사의 회고 “식인종이 있는 섬인 선교지로 떠나던 날에 해주신 아버지의 기도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 적용 질문 1

1) 우리 가정이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해답 2.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를 세운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침상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축복한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창세기 48:15~16)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그것이 평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세상의 성공 역시 언젠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은 다르다.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맡길 줄 알아야 한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아버지라는 영적 권위를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48: 14 에서 야곱이 두 손을 펴서 손자들의 머리에 얹는 것은 축복과 권위의 전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복을 흘려 보내도록 하셨다. 축복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란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 적용 질문 2

1) 자녀나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내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해답 3.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 준다.

사실 야곱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야곱의 축복은 자녀들의 현재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한 것이다.

(히브리서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가 야곱의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축복한 일’을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야곱의 축복은 유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였다.

(창세기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며 왕권을 이어 갈 지파로 축복한 것이다. 훗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낙심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녀의 영혼에 상처가 되고 잘못된 자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믿음의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먹고사는 것 이상의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 복음을 위한 사명,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꿈을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써 그 사랑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 적용 질문 3

1) 우리는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